

CXMT IPO 흥행, 산업에는 부정적 영향

CXMT 공모 흥행에 자금 조달 규모는 당초 예상 보다 2배 증가한 12.7~14.7조원

중국 CXMT 상장 관련, 기관 수요 예측에서 배정 물량의 463배를 기록하며, 공모가도 당초 예상 보다 2배 높은 8.66위안으로 결정되었다. 공모 규모는 추가 옵션 물량에 따라 579~666억 위안(12.7~14.7조원)이 될 전망이다. 중국 반도체 기업으로서는 역사적으로 최대 IPO 규모다. 7월 27일 상장 예정이며, 예상 시총은 5,792억 위안(127조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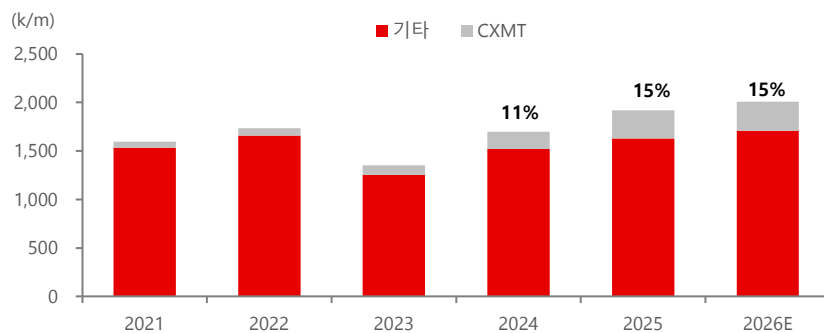
코멘트: 대형 IPO는 경쟁 심화 측면에서 산업에 부정적 영향

CXMT는 IPO에 앞서 연초부터 이미 신규 Fab 발주를 하며 시설 투자에 나서고 있다. 역사적으로 주요 경쟁사의 대규모 IPO는 업황 고점 신호였는데, 디스플레이에서 AUO, LG디스플레이 상장, 그리고 이차전지에서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케이스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IPO를 통한 자금 조달은 곧 설비투자 경쟁으로 이어진다는 점과 그 만큼 시장이 과열되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한편 CXMT는 현재 월 30만장 DRAM wafer 생산능력을 보유하여, 2025년 기준 전세계 15%를 점유하고 있으나, 아직 생산성이 한국업체들의 절반 수준에 그쳐 생산량 점유율은 6%에 그친다. 그러나 중국 내수 시장 점유율은 1Q26 26%(Vs. 2025년 13%)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DDR5 양산을 시작하였으며, 그동안 품질 우려가 있다가 최근에는 모듈업체들이 적극 채택하는 모습이고, AI 특수로 인한 공급 부족 여파로 주요 글로벌 PC, 스마트폰 OEM들이 동사에게 접근하며 밴더로 편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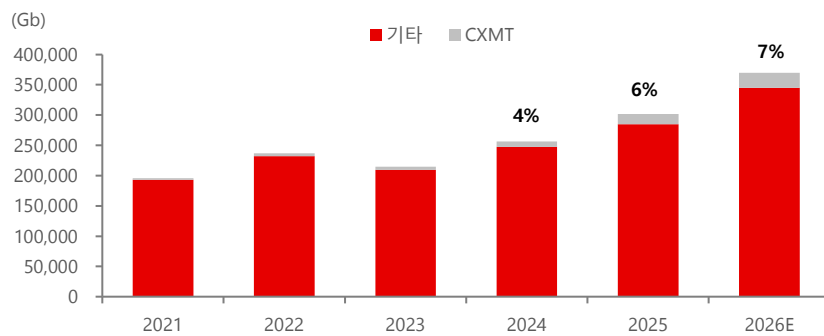
이번 AI 특수를 통해 결국 중국 메모리업체들이 IT 시장에 본격 진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향후 Down-cycle 도래 시 우리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Fig. 1: 글로벌 DRAM wafer 생산능력에서 CXMT 점유율



자료: 옴디아, BNK투자증권

Fig. 2: 글로벌 DRAM 생산량에서 CXMT 점유율



자료: 옴디아, BNK투자증권

투자등급 (기업 투자의견은 향후 6개월간 추천일 증가 대비 해당 종목의 예상수익률을 의미함.)

기업: 6개월 예상수익률 / 매수(Buy) +15% 이상, 보유(Hold) -15~+15%, 매도(Sell) -15% 이하

산업: 6개월 투자비중에 대한 의견 / 비중확대(Overweight), 중립(Neutral), 비중축소(Underweight)

조사분석자료 투자등급 비율(2026.06.30기준) / 매수(Buy) 80.6%, 보유(Hold) 19.4%, 매도(Sell) 0.0%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유가증권(DR, CB, IPO 등) 발행과 관련하여 중간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기 회사 및 상기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 이 자료에는 네이버에서 제공한 나눔글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